



# “대본 쓰다 글쓰는 재미 느꼈죠”

### 개그맨 김용, 장편소설 ‘루루’ 출간

#### 태국·베트남에 판권 선판매 화제

“오죽하면 김용이 아닌 용킴이라는 필명으로 책을 냈을까요. 개그맨이 책을 내면 외국에선 작품에 주목하지만 한국에선 편견에 가득 찬 시선만 돌아오더라고요.”

작가 김용의 장편 소설 ‘루루’(정인)가 최근 출간됐다. 남자에서 여자로 성전환을 한 주인공이 자신의 딸과 만나는 과정을 추적적 서사로 풀어낸 소설은 과격적인 내용과 읽기 쉬운 문체로 독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책은 한국 출간 전 태국과 베트남에 판권이 팔려 ‘해외에서 먼저 반응을 보인 소설’로 화제를 모았다.

‘루루’가 화제를 모은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작가인 김용이 베일에 가려져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책에 실린 작가 소개란에도 ‘한때는 모르는 사람이 없었던’이라는 수식어만 쓰여 있어 김용의 실제에 독자들의 궁금증이 쏠렸다.

놀랍게도 ‘루루’의 작가 김용은 한 시대를 풍미했던 개그맨 김용(50)이었다. 그는 “책 쓰는데만 10년이 걸렸다”며 “‘루루’는 제가 겪은 경험에 딸을 둔 성전환자의 이야기를 가미한 실화소설”이라고 설명했다.

1985년 KBS 공채 개그맨 출신인 그는 인기 프로그램 ‘유머1번지’의 ‘변방의 목소리’, ‘네로 25시’ 등에서 활약했던 ‘잘나가는’ 개그맨이었다. 그런 그가 언제부터 작가의 꿈을 키워왔을까.

김용은 “당시 코미디 프로그램은 작가가 없었다”며 “그래서 제가 스스로 대본을 쓰면서 재미를 느꼈다”고 했다. 이어 “해외를 돌아다니며 평생 직장을 무엇으로 해야 할까 고민했고, 작가가 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러던 중 우연히 한 술자리에서 여장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남자에서 여자가 된 성전환자

가 일본에서 딸을 찾았다는 이야기였다. 그는 정신이 확 들었다고 했다. 김용은 “내 이야기였으면 어땠을까?”라고 상상하며 자전적 이야기와 비무려 보자고 생각했다.

그는 “이를 소재로 비극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고 싶었다”며 “민식, 수지, 상섭 등 캐릭터를 설정하는데만 1년이 걸렸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김용이 아닌 용킴으로 작품을 내겠다고 강조했다. 한국 문단에서는 아직 익숙지 않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있는 그에게 현재 한국 문학에 대한 견해를 마지막으로 물었다.

“제가 볼 때 한국 작가들은 폐쇄적인 면이 강해요. 너무 한국적인 소재만 다루면 해외에서는 잘 안 먹히니까 시야를 좀 넓혔으면 합니다.” /연합뉴스



# “인생의 낭만, 함께 느껴요”

### SBS ‘판따라’ 로 돌아온 지성·혜리

배우 지성(39)은 복귀작으로 SBS TV ‘판따라’를 선택한 데 대해 “유영아 작가의 대본에 따뜻함과 풍부한 낭만이 있어 출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성은 19일 오후 양천구 목동 SBS사옥에서 열린 드라마 제작발표회에서 “우리 모두 ‘판따라’ 인생을 사는 것 같은데 (‘판따라’를 통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지 스스로 마음을 다잡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선택했다”고 밝혔다.

지성은 ‘판따라’에서 국내 최고 엔터테인먼트 이사로 재직하며 성공 가도를 달리던 중, 음모에 빠져 바닥으로 추락한 매니저 신석호 역을 맡았다.

신석호가 절망에 빠져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순간, ‘천상의 목소리’를 가진 젊은이 하늬(강민혁 분)와 그의 누나 그린(혜리)을 만나면서 맛있게 재가하는 이야기다.

지성은 걸스데이 혜리, 씨엔블루 강민혁 등 20대 초중반 연기자와 호흡을 맞추는 점도 드라마 선택 요인 중 하나라고 밝혔다.

지난겨울 tvN 드라마 ‘응답하라 1988’로 사랑받았던 혜리가 3개월 만에 유쾌함 가득한 여대생으로 돌아왔다.

혜리는 깜짝이 여기는 동생 하늬 가수 데뷔를 위해 맡던 매니저가 되는 그린을 맡았다. ‘우리 덕씨’에서 손타를 덜어내고 신그림과 뜨거움, 풋풋함을 채워 넣은 여대생 캐릭터다.

첫 방송을 하루 앞둔 혜리는 “덕선과 그린을 연기하면서 차이를 두려고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덕선과 그린 모두 밝은 캐릭터라서 시청자가 얼핏 보기에는 분위기가 비슷할 수도 있었어요. 그래도 제가 덕선을 잘 안다고 생각하기에 그린 부분이 그린에게서는 안 묻어나도록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혜리는 ‘응답하라 1988’ 성공에 힘입어 처음으로 지성과 드라마 원톱 여주인공을 맡았다. 혜리는 지난해 MBC TV ‘김비 힐미’로 우리를 놀린 스타 지성(39)과 호흡을 맞추는 사실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혜리는 “차기작 고민도 많았고 부담감이 정말 컸다”면서 “하지만 그럴 때마다 지성 선배에게 많이 의지했다”고 강조했다.

혜리가 깜찍한 표정으로 “지성 선배가 신석호로서 정말 좋다”고 말하자 옆에 앉은 지성은 흐트랑 미소를 지어 보였다.

혜리는 마지막까지 애교 가득한 인사를 잊지 않았다.

“정말 제 능력보다 과분한 사랑을 받았던 ‘응답하라 1988’ 팬들, 이제 ‘판따라’ 보러 아조.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SBS에서 ‘판따라’ 봐 주세요.” /연합뉴스

# 재개봉 ‘인생은 아름다워’ 4만 관객 돌파

‘인생은 아름다워’ 흥행이 심상치 않다. 19일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인생은 아름다워’는 개봉 첫날인 13일에 박스오피스 10위를 기록한 뒤 줄곧 흥행 순위 톱10 안에 들고 있다.

특히 15~17일 주말 시흥간 관객 1만8682명을 불러모아 박스오피스 9위에 오른 뒤 18일에는 7위까지 치고 올라갔다. 18일까지 누적 관객 수가 4만 1049명이다.

‘인생은 아름다워’는 이탈리아 로베르토 베니니 감독이 연출·각본·주연을 맡은 영화로, 2차 세계대전 나치 독일의 죽음의 수용소 공포에서 아들을

보호하고자 한 아버지 귀도의 이야기를 다뤘다.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남우주연상, 음악상, 외국어영화상 등 3관왕을 차지했고 칸영화제에서도 심사위원 대상을 받았다. 1999년 국내에서 개봉할 당시 서울에서만 관객 22만명을 동원해 높은 관심을 받았다.

‘인생은 아름다워’는 개봉 2주차에 들어선 18일에 스크린 수는 126개, 상영횟수는 324회로 소폭 늘었다. 개봉 11일째인 17일에 관객 4만명을 돌파했다. 18일 현재 누적 관객 수는 4만1532명이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20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 / SBS
6 40 코모닝 A	00 KBS 뉴스광장	00 2TV 아침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내일도 승리)	30 KBC 모닝와이드
8 00 아침경제 끝난 타임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0 덕더 365 30 아침연속극 (내 사위의 여자)
9 00 신문이야기 들춰구소+	30 KBS 뉴스	00 TV 소설 (내 마음의 꽃비)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 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20 시사 인사이트35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10 제304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11 40 싸인 스페셜	00 제36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40 코리언 지오그래픽 + 55 안녕 우리말(재)	00 공사차량 특별기획 (태양의 후예)(재)	00 주말특별기획 (결혼계약)(재)	55 덕더 365
12	00 KBS 뉴스12		00 MBC 정오뉴스 20 장애인의 날 특집 (아름다운 부모들의 힐링여행)	00 SBS 12뉴스 50 덕더 365 55 티마스페셜
1 10 뉴스특급	00 KBS네트워킹특선 (아름다운 충북 아름다운 사람들) 55 시청자칼럼 우리사는세상	00 장애인의 날 특집 (드라마퍼펙트 센스)	25 장애인의 날 특집 휴먼다큐 사람이 좋다 스페셜	55 TV 블로그 꿈지락
2 30 직언직설	00 장애인의 날 특집 (새 관공정쟁 13억의 마음을 잡아라)	20 특집다큐 (새 관공정쟁 13억의 마음을 잡아라)	20 텔레몬스터(재) 25 드림주니어 스페셜 55 텔레몬스터(재)	00 열린 TV 시청자세상
3 55 튜튼생활제(재)	05 후토스 일어버린 숲 30 자동차부착상 위키	05 후토스 일어버린 숲 30 자동차부착상 위키	00 MBC 뉴스 10 헬리콥터 아하 동물탐험대 55 모두모두 쇼	00 3시 뉴스브리핑
4 00 쾌도난마	00 오늘의 경제 10 걸어서 세계속으로	00 TV 유치원 30 아육정 PD의 자연을 담은 한끼 40 동물의 세계(재)	25 일일특별기획 (아름다운 당신)(재)	00 고향이 보인다 30 구리가 탐구생활
5 40 김승현의 뉴스 TOP10	00 KBS 뉴스 2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비타민(재)	00 MBC 이브닝 뉴스	00 에슬론 도넛 30 SBS 뉴스퍼레이드 50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사는세상	00 KBS 글로벌24 30 2TV 생생정보	00 KBS 글로벌24 3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5 날씨와 생활 10 덕더 365(재) 15 건강한 토크쇼 내 몸을 부탁해
7 20 채널A 종합뉴스	00 KBS 뉴스7 30 장애인의 날 특집다큐 (알뜰번째 기적, 그들이 있었다)	50 일일드라마 (천상의 약속)	15 일일연속극 (최고의 연인) 55 MBC 뉴스데스크	15 TV 블로그 꿈지락 20 일일드라마 (마녀의 살)
8 20 이제 만나러 갑니다(재)	25 일일연속극 (우리 집 꿀단지)	30 2TV 생생정보 플러스 55 동네스타 전국방송 내보내기	55 MBC 일일특별기획 (아름다운 당신)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영재 발굴단
9 50 한번 더 해피엔딩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논	
10	00 시사토크 ‘10’ 55 송터	00 또 만나요 태양의 후예 스페셜 1	00 수목미니시리즈 (good-bye, 미스터 블랙)	00 드라마 스페셜 (판따라)
11 00 나는 몸신이다	00 KBS 뉴스라인 40 장애인의 날 특선 영크리 다큐 경품	10 추적 60분	10 라디오스타	10 보컬전쟁 신의 목소리
12 50 통일준비 생활백서, 잘 살아보세	30 동행	10 스포츠 하이라이프 35 세상의 모든 다큐	30 MBC 뉴스 24 50 메이저리그 다이어리	30 나이트 라인

EBS1	
05:00 EBS에 생활 영어 05:30 건강한 아침 05:4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자연의 색 중국 쓰촨, 상하이)	10:30 최고의 요리비결 (주꾸미 냉채와 냉이 김치) 11:00 세계테마기행(재) 11:40 한국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12:40 지식채널 e 12:45 장애인의 날 특집 (희망풍경) 13:40 사이먼3 왔다 사춘기 13:50 이암 스페이스 정글 14:00 책과 팜 14:30 미앤아이로봇 15:00 모피와 친구들 15:10 세계사 시간여행
06:10 세계의 눈 (절지동물 대백과 - 공동체) 07:0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07:30 주사위 요정 큐비주 07:45 뽀롱뽀롱 뽀로로 08:00 뽀롱뽀롱 유치원 1~3 08:45 방귀대장 뽀롱이 09:00 출동! 슈퍼행스 09:30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즈 09:40 라이브 토크 부모	15:20 꼬마철학자 휴고 15:35 호기심나라 오키도 15:50 바오발성의 파오파오 16:00 출동! 슈퍼행스(재) 16:30 방귀대장 뽀롱이(재) 16:45 뽀롱뽀롱 유치원 1~3(재) 17:30 꼬마버스 타요(재) 17:45 뽀롱뽀롱 뽀로로(재)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1~4 19:00 레전드히어로 삼국전 19:30 EBS 뉴스 19:50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 20:40 다큐 오늘 (인도네시아 예술 어부의 꿈)
20:50 세계테마기행 (세익스피어 문화기행 3부 동화의 나라에서 행적을 만나다)	21:30 한국기행 (세상의 끝 고원을 가다) 21:50 EBS 다큐 프라임 (커뮤니케이션의 힘) 22:45 국한직업 23:35 장수의 비밀 24:05 지식채널 e 24:10 한국영화특선 (아디스나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틀림없이 나타난다 홍반장)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4월 20일(음 3월 14일 壬申)

<p><b>子</b></p> <p>48년생 실용성에 기초한 조처들이 필요한 때이다. 60년생 넓은 시야로 바라본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 72년생 현재의 정황이 어떻든지 간에 절대적인 기준과 소신을 가져라. 84년생 군이 내세울 필요까지는 없다. 행운의 숫자 : 33, 68</p>	<p><b>午</b></p> <p>42년생 경색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54년생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 반드시 명확한 의사 표시를 꼭 해둘 필요가 있다. 66년생 새롭게 하는 것이 무방하다. 78년생 상당한 고뇌가 따르며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25, 52</p>
<p><b>丑</b></p> <p>49년생 기본적인 사항에만 충실 한다면 족하다. 61년생 나치한 입장에 놓여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형상에 놓인다. 73년생 사소한 것은 차치하고 큰 가닥에 따라야 할 것이다. 85년생 사전에 대처해야 차질이 없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58, 06</p>	<p><b>未</b></p> <p>43년생 형식적인 것은 모두 차치하고 실리 위주로 처리하고 바라보는 것이 옳다. 55년생 불만족스럽더라도 미래 지향적인 안목이 필요하다. 67년생 불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차취어 한다. 79년생 화를 자초할 필요는 없다. 행운의 숫자 : 39, 26</p>
<p><b>寅</b></p> <p>50년생 불굴의 도전 정신이 필요하다. 62년생 복잡한 이해관계에 얽히게 되는 형상이다. 74년생 영원한 비범은 절대적 존재하지 않는 법이다. 86년생 현행대로라면 부작용을 야기할 수밖에 없으니 단처를 보완하라. 행운의 숫자 : 30, 48</p>	<p><b>申</b></p> <p>44년생 분산되던 핵심에 집중하기 힘들어진다. 56년생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최상책임을 분명히 알라. 68년생 합리성이 풍요로움을 도모하게 된다. 80년생 말만으로는 무의미하니 직접 보면서 행해야 할 단계이니라. 행운의 숫자 : 62, 64</p>
<p><b>卯</b></p> <p>51년생 파급 효과까지 감안한 후에 언행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것이다. 63년생 먼저 상대의 입장이 되어 보면 이해가 갈 것이다. 75년생 앞길에 구만리 같이 열리기 시작하느니라. 87년생 소중한 경험이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0, 22</p>	<p><b>酉</b></p> <p>45년생 조짐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확실해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57년생 활력소가 되어 주기에 충분한 일이 펼쳐질 것이다. 69년생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느니라. 81년생 가볍게 주고받는 말속에 핵심이 숨어 있다. 행운의 숫자 : 15, 72</p>
<p><b>辰</b></p> <p>40년생 치열하고 집요하게 매달려야 해결될 문제다. 52년생 가치를 극대화시키자. 64년생 사소한 것에 얽매면 단 큰일을 놓치는 법이다. 76년생 탄력을 받게 되리라. 88년생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값진 일이 있다. 행운의 숫자 : 23, 42</p>	<p><b>戌</b></p> <p>46년생 여러 가지가 통합되리라. 58년생 기본적인 것의 파악에 충실해야만 중요한 것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70년생 흔들림 없는 마음으로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한다. 82년생 조금 늦게 조정한다면 적절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84, 17</p>
<p><b>巳</b></p> <p>41년생 시종일관 계속되어야 바람직하다는 것을 알라. 53년생 감당할 수 있는 일인가부터 가능해 볼 일이다. 65년생 인식한 즉시 대처하라. 77년생 매우 부담스러운 짐을 덜어 주는 이가 생길 것이다. 89년생 멋스럽다. 행운의 숫자 : 51, 38</p>	<p><b>亥</b></p> <p>47년생 지금의 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을 것이니 마음 놓고 함께 하여도 무방하다. 59년생 상호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71년생 새로운 관계로 재정립될 가능성이 높다. 83년생 지켜보지만 으르렁 댈다. 행운의 숫자 : 57, 91</p>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